

“ESG, 기업의 백신”... 신한금융, 그룹 차원 일원화 전략 추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국내 업계 최초 ESG 성과관리체계 전 그룹사 CEO 참여 ‘ESG 추진위’ 탄소배출량·집약도 모니터링 실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한 기업의 백신과 같다”며 “ESG를 고민하고, ESG 경영을 선언하는 ESG 2.0 단계를 넘어 신한만의 차별화된 ESG 사업 모델을 발굴해 실행에 옮기는 ESG 3.0 단계로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17일 그룹 ESG 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ESG 전략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조 회장과 그룹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신한금융은 그룹사 CEO 전원이 참석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에 운영해 온 ▲ESG 전략위원회(옛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그룹 ESG 최고 전략·지속가능 책임자(CSSO)협의회(옛 그룹 지속가능경영 CSO협의회) ▲그룹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회(옛 그룹 ESG 실무협의회) 등과 더불어 그룹차원의 일원화된 전략 추진을 위한 ESG 구동체계를 구축했다.

또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친환경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관리 ▲스타트업 지원 등 혁신금융 ▲대출/투자 심사체계 구축 등 각 그룹사가 추진하는 ESG 사업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ESG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경영 활동 전반에 ESG를 내재화 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그룹이 추진한 ESG 사업 실적을 리뷰하고, 그룹 친환경전략인 ‘제로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의 우선 과제로 2030년까지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의 38.6%를 감축하기 위해 탄소배출량과 탄소집약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특히 조 회장이 직접 주관한 ESG 아젠다 토의에서는 각 그룹사 최고 경영진들이 ‘그룹사별 중점 추진 사업 프로세스에 ESG 전략을 내재화하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9년부터 금융사 최초로 전 그룹사에 전략과 지속가능담당 임원인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를 임명하고, 전략 부서에 ESG 실무 담당을 지정해 그룹 차원의 일원화된 ES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금융사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사외이사 중심의 사회적 임명위원회는 위원장이 직접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과 ESG 관련 성과 및 추진 전략에 대해 주기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투자자 및 평가기관의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ESG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ESG 핵심 이슈 관리 지표를 매 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공시하며 ESG 경영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객, 정부, 투자자, NGO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ESG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매 분기별 ESG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사회적 문제 관심으로 ESG 실천 힘쓸 것”

김성한 DGB생명보험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김성한 DGB생명보험 대표이사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ESG 실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DGB생명은 김성한 대표가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인증샷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실천 #1단멈춤 2쪽저쪽 3



김성한 DGB생명보험 대표이사가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DGB생명

초 동안 4고예방 등의 해시태그를 걸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김성한 대표는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황성규 리얼티뱅크 회장의 지목

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대표는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대건 유베이스 사장 등 3명을 지목했다.

DGB생명은 최근 미니보험 형태의 올바른 #365#생활#교통상해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DGB생명은 고객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가치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의무”라며 “미래를 위한 보장을 약속하는 보험사의 CEO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보험업의 특성에 맞는 ESG 실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NH농협카드, DT 중장기 로드맵 점검

‘카드 디지털 전략협의회’

NH농협카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카드 디지털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드 디지털 전략협의회는 농협카드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DT)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19년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DT 중장기 로드맵을 점검하고, 추진 과제 분석과 우수사례를 통한 협업 체계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카드는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오픈뱅킹 구축 및 활용 ▲온라인이 개인화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업채널 고도화 등을 설정했다.

실무 중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을 개편하는 동시에 중요도가

높은 협업 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8대 분과를 신설했다.

또 올해를 카드사업 지속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지정했다. 채널, 데이터, 콘텐츠의 융합 및 확장을 통해 탄탄한 디지털 결제·생활플랫폼을 구현할 방침이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기반의 범농협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구현해 농협카드만의 차별화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인식 NH농협카드 사장은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대비하여 카드 본업의 내실을 다지고,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삼성생명, 업계 첫 ‘울인원 뇌심보장보험’

조기발견·치료, 중요한 질환

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뇌·심혈관 질환 전조증상 및 합병증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삼성생명은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질환 보장을 강화한 ‘울인원 뇌심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인원 뇌심보장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뇌·심혈관 질환 관련 질병을 전조증상부터 합병증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뇌·심혈관 질환은 전조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후유증 및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특히 보장의 범위를 전조증상까지 넓혔다. 대표 전조증상인 ‘미니 뇌졸중(일과성 뇌허혈발작)’ 또는 ‘심방세동 및 조동’을 진단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약으로 보험업계 최초로 합병증 진단까지 보장한다. 뇌출혈·뇌경색으로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거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 심부전 진단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각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조증상 및 합병증은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한다. /백지연 기자

우리은행

LCK 팬 성원 보답 이벤트

우리은행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의 파트너 계약 체결을 기념하고, LCK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GOLD KING(골드킹) 저축왕’ 이벤트를 오는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골드킹 이벤트는 2021 LCK 스프링 2라운드에서 경기당 가장 많은 게임 머니를 모으는 저축왕 선수를 맞이하는 경품행사다. 우리은행킹을 통해 응모만 하더라도 선착순 1만2021명에게 게임 아이템을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골드킹을 맞이하는 310명에게는 초월급 아이템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영석 기자

“정부지원금으로 보육료 결제하세요”

삼성카드 10만원 이상 결제시 혜택

삼성카드는 오는 3월부터 ‘국민행복 삼성카드’와 ‘국민행복 삼성카드 V2’로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의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이를 기념해 국민행복 삼성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10만원 이상(정부지원금 포함) 결제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처음 결제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리틀라이언 허그벨트를 증정한다. 또 다음달 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한 고객이 같은 달에 쿠팡 멤버십 이용

료를 결제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로켓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100%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다음달 2일부터 7월말까지 국민행복 삼성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매월 1명에게 아이방 꾸미기 인테리어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관련 이벤트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오는 3월 국민행복 삼성카드의 보육료 결제 시작을 기념하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